

# 여성사회교육 요구도 조사\*

## Survey of Needs for Women's Social Education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양희\*\*

강사 김진희

강사 박정윤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Kim, Yang-Hee

Lecturer : Kim, Jin-Hee

Lecturer : Park, Jeong-Yu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baseline data for women's needs for social education, in order to eventual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women's social education. In the needs survey, information on the motive to participate in social education programs, obstacles to participation, and program preferences was collected. The data were then analyzed by women'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rvey participants were married women between the ages of twenty to fifty, who were sampled from Seoul, six metropolitan areas, and nine provinces. For the final analysis, 1,026 survey forms were used.

The motive for participating in women's social education programs was examined by each category. Overall, the participants showed the highest level in educational achievement motif. The motivations for lifestyle change, self-realization, and social accomplishment were also high and at a similar level.

As for obstacles to participation, social obstacle received the highest rate, followed by family obstacle and personal reasons.

As for the type of social education programs, home management programs were the most preferred, followed by psychological education, family education, leisure activity programs, physical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programs.

---

◆ 주요어(key word) : 여성사회교육(women's social education), 여성사회교육 참여동기(motif of women social education participation), 여성사회교육참여방해요인(obstacle of social education participation)

## 1. 서론

오늘날 사회의 빠른 변화는 인간에게 욕구충족이나 자기 개발

을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적 욕구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교육이다. 한국에서 사회교육의 기본 방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

\* 본 연구는 2000년도 아산재단 연구지원비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주저자 : 김양희 (E-mail : kimyhee@cau.ac.kr)

으로 미래사회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도덕적·창의적 경향성을 육성하기 위한 평생 교육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민 개인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건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이념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평생교육국, 1996).

최근에 정부나 민간 사회단체들은 사회적 요구로 인해 여성 사회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래의 여성은 산업화 사회에서 경험한 변화보다 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의 각 기관들은 여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여성 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이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그 실행에 있어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교육 요구는 물론 광범위한 교육 활동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러 기관들이 수행해 온 여성 사회교육은 여성의 교육 요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의 평생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정아, 1989; 기영화, 1994; 최운실, 1997). 앞으로 사회교육은 여성의 개인적인 요구와 사회적 요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교육은 그들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여성 자신의 개인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대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성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여성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교육 참여 동기, 참여 방해 요인,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동기는 자아 성취, 사회적 성취, 교육적 성취, 생활변화 동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회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은 가족적 방해, 사회적 방해, 개인적 방해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신체, 심리, 가정관리, 가족, 사회, 여가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여성의 사회교육적 요구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의 특정 지역과 연령에 한정된 연구 결과의 제한점을 극복하여 여성 사회교육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연구결

과는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을 갖춘 적응력 있는 여성을 길러내기 위한 사회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동기

크로스(Cross, 1981)는 사회교육 참여를 반응고리모델로 설명하는데 이 모델은 참여에 대한 태도나 자아개념 등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며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사회교육 참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참여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평가, 교육에 대한 태도, 목표에 대한 가치와 참여를 통한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도, 생애전환의 정도, 정보 접근 기회와 장애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 개인의 사회교육 참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변수가 긍정적 상황일 때 개인의 사회교육 참여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 중 한 가지 변수가 부정적인 상황일 때 참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여성학습자의 평생교육 욕구는 영역별로 직업적 동기, 개인적 동기로 구분되고 이들은 각각 결핍충족 동기와 성장개발 동기로 구분된다(이성호, 1989). 또한 평생학습의 가치는 도구적인 가치와 내재적인 가치로 구별할 수 있으며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은 대체로 결핍충족 동기 지향적인 사람들 또는 결과 지향적인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반면 평생학습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평생교육 참여 목적을 참여 그 자체에 두고 있으며 대체로 성장개발동기 지향적인 사람들 또한 과정 지향적인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교육 참여에 대한 태도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가와 교양을 위한 사회교육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여성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나 욕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들이 계속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실용적 목적이든 단순히 교양차원이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1992), 박삼근(1995)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들의 교육욕구를 인터뷰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이나 사회에서 도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자기활동의 세계를 갖기 위해서', '직장여성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학습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등이다.

여성 사회교육 참여에 관련된 변수로는 연령, 학력, 사회경제

적 지위 등이다. 여성개발원(1987)에 따르면 여성사회교육은 30대 연령층이 가장 참여 정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순 이었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 참여경험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초·전문대졸, 고졸, 중졸로 나타났다. 결국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다. 미국의 경우 사회교육 참여 여성들은 대체로 40대 이하로서 평균이상의 수입, 사무직종에 직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으며 대졸자 사회교육 참여율은 고졸자의 2배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이다(이혜준, 1990).

## 2.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대체로 상황적 장애요인, 기관·제도적 장애요인, 학습자의 성향적 장애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습참여의 장애요인들은 참여의 결정 즉 참여와 비참여 결정과 학습을 계속하는가 또는 중도 탈락하느냐 등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에 영향변수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는 참여 동기뿐만 아니라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Penland(1979)는 참여 저해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상황적 저해 요인으로 비용, 시간부족, 개인적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시간과 돈의 부족은 성인교육 참여에 중요한 저해요소가 됨으로 성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밖에서도 상황저해 요인으로는 지역적 고립, 교통의 불편 등과 같은 성인 학습자의 주위 환경 문제가 있다. 둘째, 제도적 저해 요인으로 교수내용 및 방법에 대한 불만, 교육과정의 부적절성 등이 포함된다. 즉, 불편한 일정이라든가 정시제 학생들에게 전일제 수업료를 내게 하는 것, 또는 제도적인 위치 등과 같은 것 때문에 학습자 집단을 낙담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학습기관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장애라고 볼 수 있다(김명숙, 1999).

셋째, 정보적 저해 요인으로 전 교육목표 달성 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찾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 성인들은 어디에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가 하는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교육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교육 참여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정보의 부족은 성인교육의 참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넷째, 심리적 저해 요인은 조직화된 성인학습 활동에의 참여를 방해하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 태도, 또는 지각을 의미한다. 사회 심리적 장애는 실체나 활동으로서의 교육과 학습자의 잠재적 학습자로서의 자아 중 어느 하나와 연관되어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성인들의 교육참여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부족과 비용 문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관심부족, 교육과정의 부적절성, 성인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지역

적 특성, 가정적 책임 및 가족이나 주변의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Darkenwald & Valentine(1985)는 참여 방해요인으로 신념의 부족, 교육과정의 부적절성, 시간부족, 개인적 관심 부족, 비용 그리고 개인적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박하식(1984)은 도시 주부들의 학습 장애요인을 비용·시간문제, 집안 일의 과다, 교육시간 부적절, 집 바깥 사람이 없어서, 자녀양육, 직업, 교통불편 등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권영완(1989)은 정보 부족, 자신감 결여, 프로그램 부적합, 시간부족, 가정·비용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 3.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Liverigh & Haygood는 (1) 기초·보충교육 (2) 직업·기술·전문교육 (3) 시민생활교육 (4) 자기충족 교육으로 구분하였고, 한정자(1984)는 여성단체의 교양교육프로그램 내용 영역을 (1) 자녀교육 및 육아 (2) 부부관계 (3)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4) 여성의식 및 여성문제 (5) 법률 (6) 경제 (7) 식생활 (8) 건강관리 (9) 상식 및 교양 (10) 체육으로 분류하였다(아산복지재단, 2001). 우리나라의 여성 사회교육 내용은 여가 활동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1984)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단체와 여성회관 등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구성 내용은 주로 '교양증진', '의식교양', '취미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치숙(1991)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 사회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Liverigh & Haygood이 제시한 분류방법으로 각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별 수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미생활교육'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생활교육', '경제·소비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기초·교양교육', '취미생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박삼근(1995)에 따르면 여성사회교육은 직업활동, 자원봉사활동 및 단체활동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의식을 고양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들의 참여의식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양희 외(1998)의 농촌 여성 평생교육 욕구 조사결과 주부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은 '가족관계 과정', '조리과정', '교양과정'으로 나타났고, '자격증 과정', '건강스포츠 과정' 등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농촌 여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여성사회교육 기관별로 제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한 교육영역은 비슷하지만 그 영역별 교육 내용은 각 기관별 특성이거나 여건에 따라서 서로 동일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숙(1999)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위한 능력 함양에 직결된 명시적 목표지향형 동기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일회성 교양강좌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육 뿐만 아니라 점차 전문교육과의 직업기술 훈련 및 자격, 면허 취득 그리고 고학력에 상응하는 인정을 수반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선호되고 있는 변화 추세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또,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여가 선용에서 능력개발의 방향을 옮겨져 가는 경향으로 이는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바라고 있으며 자질함양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기혼 여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빈도(%)

변 인	집 단	N(%)
학 력	고 졸 이 하	526 (50.8)
	대 졸 이 상	510 (49.2)
소 득	200 만 원 미 만	541 (52.2)
	200 만 원 이 상	495 (47.8)
직 업	있 음	500 (50.8)
	없 음	534 (51.6)
가 족 주 기	자녀 미 취 학 기	364 (36.3)
	자녀 학 령 기	666 (64.7)
연 령	20 - 29 세	312 (30.1)
	30 - 39 세	384 (37.1)
	40 - 49 세	340 (32.5)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39세 집단 37.1%, 41~49세 집단 32.8%, 20~29세 이하 집단 31.28%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85세(S.D=8.67)세 이고, 가족생활 주기에서 보면, 결혼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인 미취학 아동기에 속하는 비율이 35.3%이고, 자녀 교육기에 속하는 비율이 64.7%이다. 학력의 구성비는 고졸이하 50.8%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이 49.2%를 차지했고, 직업을 살펴보면, 취업 주부 48.4%, 전업주부의 비율 51.6%이다. 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사례가 52.2%, 200만원 이상 사례는 47.8%로 구성되어 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동기, 참여 방해 요인,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들이며, 일부 측정도구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다.

##### 1)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동기

여성사회교육 참여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해준(198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아니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7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것이다. 29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5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비자발적 동기’와 ‘생활변화’ 동기는 설명력이 낮았으나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5개 하위 요인을 유지하여 분석하였다.

여성 사회교육 참여 동기에서는 사회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자아성취 동기’의 설명력이 31.32%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성취 동기’의 설명력이 10.33%이고, 지적 호기심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적 성취 동기’의 설명력은 7.00%이다. ‘비자발적 동기’는 주변의 권유로 사회교육을 받으려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변화 동기’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

##### 2)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

여성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최운실(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에 대한 문항은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서 “전혀 아니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7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이 사회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정도가 큰 것이다. 12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3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가족적 방해 요인’은 육아 책임과 가족 역할로 인해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설명력은 22.13%이다. ‘사회적 방해 요인’은 여성사회교육의 제도적 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방해 요인’은 여성 개인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자신과 열의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가족적 방해 요인’이 다른 두 가지 요인보다 설명력이 높은 결과는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개인적 의지와 선택의 결여보다는 가족과 사회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성사회교육 요구도 조사

이전에 본 연구자가 수행한 여성사회교육 기관의 실태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아산복지재단 연구보고서, 2001년)를 통해 구성하였다. 1,277개의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신체, 심리, 가족관계, 가정생활관리, 사회, 여가의 6개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여가, 스포츠, 취미, 교양 등으로 구분된 기존의 분류보다 여성사회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영역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능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총 144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각 문항은 7점 척도로서 “전혀 필요 없다”가 1점, “매우 필요하다”가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이다. 각 영역의 하위 프로그램명은 요인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신체적 영역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총 27개 문항으로 요인 분석 결과 6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졌으며 각 요인의 설명력은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요인1은 질병과 건강관리에 관한 이론적인 강좌들로 ‘건강교육’ 프로그램

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수치침, 마사지와 같이 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는 장소, 장비, 비용을 기준으로 나누어졌는데 골프, 스키 등과 같이 장소 이동, 장비,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스포츠 활동들은 ‘고급 스포츠’로 장소는 이동하지만 간편한 장비, 낮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테니스와 볼링 등은 ‘취미 스포츠’로 대중성이 강한 에어로빅, 배드민트 등은 ‘생활스포츠’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심리적 영역은 13개 문항으로 ‘심리적 적응’과 ‘심리적 위기 관리’ 2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요인1의 설명력은 35.68%이며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내용들로 구성되어 ‘심리적 적응’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적응하고, 사회성 발달과 인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예방할 수 있는 강좌들을 포함하고 있어 ‘심리적 위기 관리’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생활관리 영역은 총 17개 문항이며, 요인 분석 결과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졌다. 요인 1은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표 2> 척도의 구성

측정 도구	하위요인명	설문지문항	Cumulative (%)	Cornbach $\alpha$	측정 도구	하위요인명	설문지문항	Cumulative (%)	Cornbach $\alpha$
참여 동기	자아성취	II-6,7,12,13,14,15,16,17,8,19,20,21,22	31.32	.8925	참여 방해	가족적	III-1,2,3,4,5	22.13	.7582
	사회적성취	II-1,2,3,4,5,8	10.33	.8162		사회적	III-6,7,8,9	19.86	.7740
	교육적성취	II-24,26,27,28,29	7.00	.8425		개인적	III-10,11,12	19.70	.8392
	비자발적	II-9,10,11	5.16	.7886		전 체		61.78	.8571
	생활변화	II-23,25	4.12	.5472	사회적 영역 P	건강관련	V-5-16,17,22,23,24,25,26	15.54	.9073
	전 체		57.81	.9176		자격증관련	V-5-12,13,14,18,19,20,21	14.45	.8738
건강교육	V-1-18,19,21,22,23,24,25	17.40	.8437	교양관련		V-5-5,6,7,8,9,10	13.79	.9011	
건강보조	V-1-7,8,10,11,12	10.97	.8160	사회변화적응		V-5-1,2,3,4	10.60	.8534	
고급스포츠	V-1-2,4,9,16	9.14	.7128	학력인정		V-5-27,28,29,30,31	9.39	.8473	
취미스포츠	V-1-1,3,5,6	8.61	.7066	전 체			63.77	.9473	
신체적 영역 P	임신관리	V-1-17,20,27	8.23	.8074	가정관리 영역 P	식생활관리	V-3-7,8,9,10,11,12	22.25	.8408
	생활스포츠	V-1-13,14,15	7.88	.7841		의생활관리	V-3-16,17,22,23,24,25,26	20.00	.8413
	전 체		62.05	.9071		가정관리·주생활관리	V-3-3,13,14,15,16,17	18.43	.8636
	가족스트레스관리	V-4-6,19,20,21,22,23,24,25,26,27	19.20	.9131		전 체		60.68	.9131
	자녀교육	V-4-7,8,9,10,11,12,13	18.51	.9268	여가 영역 P	취미	V-6-19,21,22,23,24,25,26,27,28	15.01	.8795
	부모자녀관계향상	V-4-14,15,16,17,18	15.78	.9038		미술활동	V-6-6,7,8,9,10,13	13.04	.8983
부부관계 유지	V-4-1,2,3,4,5	14.21	.9087	음악활동		V-6-2,3,4,5	12.14	.8605	
전 체		67.70	.9577	생활여가		V-6-1,11,12,14,15,20	11.62	.8396	
심리적 적응	V-2-1,2,3,4,5,6,7,8	35.68	.9057	여행		V-6-16,17,18	10.28	.8496	
심리적 위기관리	V-2-9,10,11,12,13	23.52	.7960	전 체			62.09	.9507	
전 체		59.20	.9027						

&lt;표 3&gt;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교육 참여 동기

변수	참여동기 집 단	자아 성취 동기		사회적 성취 동기		교육적 성취 동기		비자발적 동기		생활변화 동기		참여동기 전체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학력	고졸 이하	4.17 (1.22)	-3.161**	4.19 (1.20)	-2.286**	5.01 (1.34)	-1.629	2.52 (1.42)	-.092	4.58 (1.50)	-.881	4.11 (.91)	-2.009**
	대졸 이상	4.41 (1.00)		4.36 (1.10)		5.14 (1.14)		2.53 (1.34)		4.66 (1.41)		4.22 (.84)	
소득	200만원 미만	4.28 (1.20)	-.376	4.30 (1.20)	.808	5.07 (1.30)	-.204	2.56 (1.45)	.811	4.69 (1.48)	1.581	4.18 (.93)	.863
	200만원 이상	4.30 (1.14)		4.24 (1.10)		5.08 (1.18)		2.49 (1.31)		4.54 (1.43)		4.14 (.93)	
직업	유	4.42 (1.11)	3.620***	4.39 (1.23)	3.254**	4.95 (1.23)	-2.994	2.74 (1.47)	4.889	4.50 (1.47)	-2.370	4.21 (.88)	1.717
	무	4.16 (1.20)		4.16 (1.19)		5.18 (1.25)		**		2.32 (1.26)		***	
가족주 기	자녀 미취학기	4.44 (1.09)	3.051**	4.26 (1.21)	-.309	5.03 (1.21)	-.672	2.48 (1.34)	-.859	4.72 (1.40)	1.697	4.19 (.86)	.850
	자녀 학령기	4.20 (1.20)		4.28 (1.20)		5.09 (1.26)		2.55 (1.40)		4.55 (1.48)		4.14 (.89)	
연령	20-29세	4.49 (1.13)	13.976*** AC BC	4.32 (1.20)	.381	5.12 (1.24)	1.744	2.50 (1.35)	.819	4.74 (1.42)	3.624* AC BC	4.24 (.88)	3.744* AC
	30-39세	4.36 (1.09)		4.26 (1.06)		5.13 (1.19)		2.48 (1.36)		4.67 (1.47)		4.19 (.85)	
	40-49세	4.03 (1.24)		4.25 (1.25)		4.97 (1.30)		2.61 (1.43)		4.45 (1.47)		4.06 (.91)	
전 체		4.29(1.17)		4.27(1.15)		5.07(1.24)		2.53(1.38)		4.62(1.46)			

\* p&lt;.05 \*\* p&lt;.01 \*\*\* p&lt;.001

으로 상차림과 요리에 관한 강좌로 구성되며, 요인 2는 의류상품 고르기와 수선,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의생활 관련 프로그램'이다. 요인 3은 가정관리 프로그램(재산과 시간관리)과 실내 인테리어와 주택관리, 부동산 정보 등을 포함하는 주생활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가정관리와 주생활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 가족관계 영역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총 27개 문항이며 요인 분석 결과 '가족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부관계 유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인 영역의 프로그램은 총 31개 문항으로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졌고, 전체 척도의 설명력은 63.77%이다. 하위 요인은 '취업관련 프로그램',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교양 관련 프로그램', '사회변화 적응 프로그램', '학력 인정 프로그램'이다. 여가 영역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여성 사회교육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술, 취미 활동을 종합하여 총 29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하위 프로그램(취미, 미술, 음악, 생활,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자료수집과 절차

측정 도구의 문항을 작성한 후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2001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요인 구조를 검증하고, 표현이 어색하거나 조사

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들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4월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9개의(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지역에서 20-49세 여성 추계인구의 0.1%를 표본 수로 정하였고 조사는 각 지역별로 조사담당자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각 지역의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이 한정되지 않도록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사례수를 정한 후 학교의 자모회, 부녀회와 접촉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1,036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회수율은 72.1%이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것으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26부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교육 참여동기 척도, 방해요인 척도, 프로그램 선호도 척도는 하위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교육참여 동기와 방해요인, 프로그램 선호도는 변수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지역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교육 참여동기, 방해요인, 프로그램 선호도의 차이 검증은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

하였고, 집단간 차이 검증을 위해 Duncan test로 사후 검증이 이루어졌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동기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동기를 하위 요인별로 보면, '교육적 성취 동기'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M=5.07), 다음으로 '생활변화 동기'(M=4.62), '자아성취 동기'(M=4.29), '사회적 성취 동기'(M=4.27)의 평균값이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교육 참여 동기로 가장 낮은 동기는 타인의 권유로 교육에 참여하는 '비자발적 성취 동기'(M=2.53)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개인적 동기로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교육적 성취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정규의 교육 과정에서 남성보다 평균교육 연수가 짧고, 교육 미충족율이 높다는 현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교육 참여동기를 각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표 3),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는 반면 학력, 직업, 가족주기, 연령 그리고 직업에 따라 사회교육 참여 동기는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 성취' 동기와 '사회적 성취'동기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이상의 학력 집단이 고졸이하의 학력 집단보다 자아성취와 사회적 성취를 목적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다.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높은 것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전의 연구결과(여성개발원, 1987)와 일치하는 것은 여성교육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 못했음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동기는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동시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여성사회교육이 여성의 사회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력에 따른 차이는 우리나라의 여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보다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직업은 사회교육 참여 동기의 하위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직업이 있는 집단은 전업주부보다 '자아 성취', '사회적 성취', '비자발적 동기'를 높게 나타낸 반면 '교육적 성취'와 '생활변화'동기는 전업 주부 집단에서 더 높다. 직업을 지닌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성장개발 동기를 나타내었고, 전업주부들은 결핍 충족 동기에 의해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라 사회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자아성취'동기는 가족주기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어 자녀 미취학기 집단이 자녀 학령기 집단보다 그리고 연령이 낮은 집

단이 높은 집단보다 '자아 성취'동기를 높게 인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은 '생활변화'동기에도 영향을 미쳐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사회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여성이 사회교육에 참여 경험이가장 높다는 연구(김명숙, 1999)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이 끝난 이후 바로 이어지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제시해 준다. 또한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여성 사회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정보의 급증, 여가증대,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회교육 참여 동기는 여성의 사회교육 필요성 인지와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지역에 따라 사회교육 참여 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여성사회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할 때 교육 참여자의 특성과 지역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교육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고, 여성들이 당면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2.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을 하위 요인별로 보면, '사회적 방해'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M=3.95), 다음으로 '가족적 방해'요인(M=3.19), '개인적 방해'요인(M=2.77)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은 주로 제도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실시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적 방해 요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들이 요구된다.

가족내의 역할로 인해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적 방해 요인'은 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의해 차이가 있다. 대졸이상의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자녀미취학기 집단이 학령기 집단보다 그리고 30-39세 집단이 다른 연령의 집단보다 가족적 방해 요인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이 높은 집단은 가족적 방해 요인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반면 학력이 낮은 집단은 가족적 방해 요인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 주부는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역할로 인해 사회교육에 참여하려고 할 때 가족적 방해 요인을 좀더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미취학기에 있는 여성일수록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적 방해 요인으로 사회교육 참여 방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가족생활 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기간, 시간, 교육 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교육 참여방해 요인을 각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표 4)에서 여성사회교육의 체반 여건 문제로 구성된 '사회적 방해 요인'은 학력이 높은 집단, 소득

<표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

변 수	참여방해요인 집 단	가족적 방해 요인		사회적 방해 요인		개인적 방해 요인		참여 방해 전체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학력	고 졸 이 하	3.03(1.36)	-3.982***	3.85(1.43)	-2.309**	2.97(1.61)	3.925***	3.28(1.15)	- .747
	대 졸 이 상	3.37(1.38)		4.05(1.40)		2.59(1.47)		3.34(1.14)	
소득	200만원 미만	3.24(1.33)	.888	4.07(1.37)	2.972**	2.87(1.57)	1.812	3.39(1.11)	2.426*
	200만원 이상	3.16(1.43)		3.81(1.47)		2.69(1.53)		3.22(1.18)	
직업	유	3.55(1.40)	8.356***	4.12(1.37)	4.027***	2.94(1.59)	3.219**	3.54(1.17)	6.421***
	무	2.86(1.25)		3.77(1.44)		2.63(1.49)		3.09(1.08)	
가족주기	자녀 미취학기	3.37(1.33)	2.990**	4.18(1.35)	3.859***	2.48(1.42)	-4.784***	3.34(1.06)	.516
	자녀 학령기	3.11(1.39)		3.82(1.43)		2.95(1.59)		3.30(1.19)	
연령	20 - 29세	3.30(1.34)	6.587**	4.15(1.42)	18.745***	2.44(1.44)	15.567***	3.29(1.09)	2.512
	30 - 39세	3.31(1.41)		4.12(1.35)		2.77(1.49)		3.41(1.13)	
	40 - 49세	2.98(1.36)	AC/BC	3.57(1.43)	AC/BC	3.11(1.65)	AC/BC/CA	3.22(1.22)	
전 체		3.20(1.37)		3.95(1.42)		2.78(1.54)			

\* p<.05 \*\* p<.01 \*\*\* p<.001

이 낮은 집단, 취업 주부, 자녀미취학기, 30-39세 여성이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방해 요인은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주된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이정아, 1989), 여성교육의 향상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방해 요인을 경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다양한 계층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결과 볼 수 있다.

여성 개인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자신과 열의가 부족한 '개인적 방해 요인'은 학력, 직업,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개인적 방해 요인을 높게 평가한 것은 학력에 따라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학력이 높은 집단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여성개발원, 1987; 이혜준, 1990)를 반영해 준다. 또한 취업 주부가 전업주부보다 개인적 방해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은 일과 가정생활의 이중 역할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30대 연령 집단은 자녀교육에 집중하는 시기로서 자신을 위한 교육적 성취에 관심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3.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선호도의 평균값을 각 영역별로 보면(표 5), 가정관리 영역(M=5.2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리적 영역(M=5.01), 가족 영역(M=4.94), 여가 영역(M=4.32), 신체적 영역(M=4.24), 사회적 영역(M=3.9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김양희, 1998)와 유사한 반면 프로그램 내용별 수강 실태를 조사한 연구(노치숙, 1991)에서 '취미생활교육'이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교육'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른 것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가족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각 영역의 프로그램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신체적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건강보조 프로그램(M=6.13)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M=5.11), 생활스포츠 프로그램(M=5.07), 취미스포츠 프로그램(M=4.68), 임신관리 프로그램(M=4.34) 순이며, 고급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M=3.87)는 4.0이하로 '보통이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심리적 적응 프로그램의 요구도(M=5.22)가 심리적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M=4.68)보다 높았으며, 가정생활관리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식생활관리 프로그램(M=1.32)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가정관리 및 주생활관리 프로그램은 평균값은 5.02 의생활관리 프로그램은 4.74이다.

가족관계 프로그램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평균값이 모두 4.0이상으로 요구도가 보통 이상을 나타냈다. 가장 점수가 높은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유지 프로그램(M=5.24)이고,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M=4.98), 가족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M=4.67), 자녀교육 프로그램(M=4.46)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의 가족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중심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프로그램보다 부부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취업관련 프로그램(M=3.45)과 학력인정 프로그램(M=3.24)의 점수가 4.0에 미치지 못해 여성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제시해 준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사회변화 적응 프로그램(M=5.18)이고, 다음으로 교양 프로그램



<표 5>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프로그램영역	세부 프로그램명	M(SD)	전체 M(SD)	프로그램 영역	세부 프로그램명	M(SD)	전체 M(SD)
신체 프로그램	건강 교육 프로그램	5.11(1.24)	4.24 (.88)	사회 프로그램	취업 관련 프로그램	5.11(1.24)	3.95 (1.22)
	건강 보조 프로그램	6.13(1.48)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6.13(1.48)	
	고급 스포츠 프로그램	3.87(1.26)			교양 프로그램	3.87(1.26)	
	취미 스포츠 프로그램	4.68(1.25)			사회변화 적응 프로그램	4.68(1.25)	
	임신 관리 프로그램	4.34(1.74)			학력 인정 프로그램	4.34(1.74)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5.07(1.24)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	5.07(1.24)	
심리프로그램	심리적적응 프로그램	5.22(1.16)	5.01 (1.16)	가정관리 프로그램	의생활 관리 프로그램	5.22(1.16)	5.24 (1.11)
	심리적 위기관리 프로그램	4.68(1.25)			가정관리,주생활관리 프로그램	4.68(1.25)	
	가족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4.67(1.35)			취미 프로그램	4.67(1.35)	
가족 프로그램	자녀 교육 프로그램	4.46(1.23)	4.94 (1.17)	여가 프로그램	미술 활동 프로그램	4.46(1.23)	4.32 (1.13)
	부모자녀관계향상 프로그램	4.98(1.36)			음악 활동 프로그램	4.98(1.36)	
	부부관계유지 프로그램	5.24(1.40)			생활 여가 프로그램	5.24(1.40)	
					여행 프로그램	4.60(1.54)	

(M=4.49)과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M=4.44)이 있다. 여가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생활여가 프로그램(M=4.6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행 프로그램(M=4.60)을 원했으며 미술활동 프로그램(M=4.24)과 음악활동 프로그램(M=4.24)에 대한 요구도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부록 1>과 같다. 먼저 신체 프로그램은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 20대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그리고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신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세부 프로그램에서도 건강교육과 건강보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유사한 경향이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교육과 건강보조 프로그램은 교육 수혜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개설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신체 영역의 프로그램들은 교육 대상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파악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 프로그램의 전체 값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차이가 있다. 심리적 적응 프로그램은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요구도가 높았고, 심리적 위기 관리 프로그램은 40대 여성집단이 그 외 연령 집단보다 그리고 자녀학령기 집단이 자녀 미취학기 집단보다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었다. 심리 프로그램이 높은 연령 높은 집단에서 선호되는 것은 여성의 중년기로의 전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년기의 여러 가지 변화는 여성에게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해 심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관리 프로그램의 전체 값은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어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가정관리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세부 프로그램에서 식생활관리 프로그램은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그리고 자녀 미취학기의 집단이 자녀학령기의 집단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나타냈으며, 가정관리 프로그램은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프로그램 전체 값은 연령, 학력, 가족주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집단이 그 외 연령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자녀미취학기 집단이 자녀학령기 집단보다 가족관련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유지 프로그램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가 차이가 분명하여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자녀미취학기 집단이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프로그램에 요구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사회 영역 프로그램의 전체 값은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연령이 낮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소득이 낮은 집단이 사회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높게 평가하였다. 소득이 낮은 집단이 취업관련과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에 요구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은 사회교육을 통해 취업을 원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취업과 연관되지 않는 교양과 사회변화 적응 프로그램들은 학력이 높은 집단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분명하다.

여가 프로그램은 연령과 학력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데 학력이 높은 집단이 여가 프로그램의 모든 세부 영역에서 평균 값이 높아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여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은 취업과 자격증 같이 생활에 활용하여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생활여가 프로그램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선호도가 높고, 여행 프로그램은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선호도가 높다. 또한 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 음악활동 프로그램은 선호하고 있다.

<표 6>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변 수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심리프로그램		가정관리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사회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M(SD)	t(F)값
학력	고졸 이하	4.16 (.95)	-3.057*	4.96 (1.11)	-1.551	5.19 (1.15)	-1.561	4.83 (1.27)	-3.279*	3.91 (1.05)	-2.930**	4.19 (1.22)	-3.776***
	대졸 이상	4.33 (.81)		5.07 (1.02)		5.29 (1.06)		5.07 (1.08)		4.09 (.91)		4.45 (1.02)	
소득	200만원 미만	4.27 (.91)	1.116	5.00 (1.09)	-.504	5.22 (1.17)	-.531	4.96 (1.23)	.241	4.06 (1.03)	2.109*	4.27 (1.19)	-1.436
	200만원 이상	4.21 (.85)		5.03 (1.03)		5.26 (1.04)		4.94 (1.11)		3.93 (.95)		4.30 (1.07)	
직업	유	4.27 (.87)	.972	5.00 (1.01)	-.738	5.17 (1.14)	-2.029*	4.92 (1.15)	-.819	4.02 (.99)	.858	4.36 (1.14)	1.144
	무	4.22 (.90)		5.06 (1.07)		5.31 (1.07)		4.98 (1.19)		3.97 (.99)		4.28 (1.12)	
가족주 기	자녀 미취학기	4.30 (.87)	1.598	4.99 (1.00)	-.619	5.32 (1.10)	1.574	5.08 (1.10)	2.626*	4.07 (.97)	1.672	4.32 (1.06)	.073
	자녀 학령기	4.21 (.89)		5.03 (1.08)		5.20 (1.11)		4.88 (1.20)		3.96 (1.00)		4.32 (1.16)	
연령	20 - 29세	4.33 (.86)	6.587**	4.99 (1.02)	.096	5.31 (1.17)	1.768	5.06 (1.07)	18.516***	4.11 (.94)	4.141*	4.35 (1.10)	.151
	30 - 39세	4.28 (.87)		5.03 (1.06)		5.27 (1.03)		5.08 (1.10)		4.00 (.96)		4.32 (1.14)	
	40 - 49세	4.13 (.91)	5.02 (1.12)	5.15 (1.13)		4.70 (1.24)		3.88 (1.06)		4.30 (1.15)			
전 체		4.24(.88)		5.01(1.16)		5.24(1.11)		4.94(1.17)		3.95(1.22)		4.32(1.13)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교육 참여 동기, 참여 방해 요인,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여성의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과 연령에 한정된 연구 결과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사회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결과 학력, 취업,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동기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사회교육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많은 교양 과목들이 뷔페식으로 나열된 프로그램들은 여성들이 사회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사회교육을 여가의 의미로 해석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로 내용을 구성한다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사회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여성들이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동기가 여가와 취미생활이 아니라 교육적 성취와 생활변화라면 여성 사회교육의 목표는 여성의 배우고자 하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교육 참여 방해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사회교육의 제도적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미와 여가 중심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학력이 높은 여성과 취업주부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회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 여성들의 사회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취업준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교육비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사회교육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특정한 지역과 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사회교육 기관을 증가시키고, 자녀를 동반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사회교육 시설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방과 유아기와 학동기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사회교육 기관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다양하지만 그 어느 곳도 전문적인 여

성사회교육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여성사회교육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센터나 비영리 단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사회교육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성사회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성교육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 여성사회교육 기관을 부설로 설치하거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 혹은 교육시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성사회교육 센터로 기능한다면 여성사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수적 증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성격과는 상관없이 여성사회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대중 비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현실은 여성사회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결과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가정관리와 가족역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중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간의 연계를 추진하여 각 기관마다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기관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관들과 상호 교환하여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성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회교육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의 생애 주기는 남성과는 다르며, 개인의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은 물론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까지 포함하는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교육 요구도를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의 연령을 기본 축으로 두고,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마다 여성 개인으로서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발달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사회교육 모형은 평생 교육으로서의 여성사회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고 중단 없는 여성교육을 목표를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 접수 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2월 16일

**【참 고 문 헌】**

곽삼근(1995).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교육요구 분석. *여성사회교육*, 3, 1-24.

권영완(1989). 한국 주부의 사회교육 참여저해 요인 분석. *여성연구*, 17, 7-44.

기영화(1994). 여성 학습자의 사회교육 참여 저해요인 분석. *여성사회교육*, 1, 1-18.

김경동(1997). 21세기 사회의 전망과 미래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김경아(1989).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숙(1999). 여성사회교육 적극 참여를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 외(1994).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양희 외(1997). 농촌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1, 87-120.

김재인 외(1995).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재인(1995). 여성교육과 여성의 지위 변화. *여성연구*, 48, 5-41.

박영혜(1993). 한국 여성의 교육 문화적 지위.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연구*, 32, 39-61.

박희식(1984). 도시주부들의 평생학습 장애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미식(1994). 여성사회교육의 현재와 미래. *여성사회교육*, 2, 85-108.

이연숙(1998).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서울 : 학지사.

이정아(1989).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준(1989). 한국의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참여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미옥(1994). 여성학습자와 대학 성인교육. *여성사회교육*, 1, 171-188.

차갑부(1995).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 양서원.

최운실(1994).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접근. *여성사회교육*, 1, 220-251.

최운실 외(1997). 경기 여성사회교육 요구와 사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97년 경기도 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1991). 일본의 평생교육과 여성교육 프로그램. *여성연구*, 31, 151-162.

한명희(1994). 여성사회교육의 현재와 미래. *여성사회교육*, 2, 160-188.

한준상(1987). 사회교육론. 서울: 창아 출판사.

Beder, H.(1990). Reasons for nonparticipation in Adult basic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4), 207-218.

Cross, K. P.(1981). *Adult as Learns :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 Jossey Bass Pub.

Darkenwald, G. G. & J. Valentine(1985). Factor structure of deterrent to public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35(4), 177-193.

Darkenwald, G. G.(1990). Deterrence to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 Profile learner. *Adult Education Quarterly*, 41(1), 29-42.

Hays, E. R. & Smith, L.(1994). Women in adult education : An analysis of perspectives in major journals. *Adult Education Quarterly*, 44(4), 201-21.

- Kazaemek, F.(1988). Women and adult literacy : Considering the other half of the house. *Lifelong Learning*, 11(4), 20-24.
- Martindale, C. J. & Darke, J. B.(1989), Factor structure of deterrence to participation in off-duty adult education program. *Adult Education Quarterly*, 39(2), 63-75.
- Merriam, S. & Clark, M.(1991). *Lifelines : Patterns of work and love*.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Shakeshaft, C.(1989). *Women in education administration* (Updated Ed). Newbury Park : SAGE Pub.